



일천공가격폭락

지난해 대비 절반가격... 더 떨어질 듯

감추마름 한약재에 골고루 들어가는 천공의 외국산 수입과 재배면적 확대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 재배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배농민들의 따르면 몇년전까지만 해도 대 3백원 하던 가격이 절

반가량 떨어진 2천5백 원에도 거의 매가가 없다는 것.

또 천공들이 천공역 기스가 수입되는 데다 중간상인들의 중간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북농부지역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뭄과 함께 올해도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울산산 천공이 본격 출하되는 11월쯤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설

생약재배 농민의 호소

경기 북부지역 농민들이 지난 7월의 수해에서 아직도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하니 충격이다. 특히 생약재배농민들의 피해도 만만찮았고, 그들 역시 복구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부분은 생약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목이다.

경기 연천, 파주와 강원 철원지역에 쏟아진 지난 7월 26~28일의 폭우는 「최악의 물난리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중앙재해대책 본부와 농림부가 발표한 피해만도 침수농지가 1만5천5백 46ha, 3백5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지역 농민은 모두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약인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각 부분에서 생약인들이 적절한 자리매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에선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피해복구만도 그렇다.

정부는 이번 피해복구지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농약대·대과대·농경지복구·축사·비닐하우스복구비등을 지원하게 돼있다. 이밖에 피해상황에 따라 무상양곡을 지급하거나 영농 자금이자 감면과 상환이 연기조치되고, 농조비가 감면된다. 중고생 수업료가 면제되는 부분도 있다. 피해복구지원에 대해 만족해할 농민이 많지 않겠지만 황기 2만여평을 심었다가 수재를 당한뒤 정부로부터 복구비 한푼 못 받은 경기 연천의 생약인 김민욱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생약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인 것이다. 한 농민은 벼농사, 배추농사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수시로 해가면서 생약농사는 피해조사 한번 안 해간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지원할 곳은 많고, 확보된 예산과 자금이 부족한 정부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생약인을 적절히 끌어안아야 할 때임을 우리는 호소한다. 연초에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영농자금 부분에서도 생약농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리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찾을 때도 생약농사를 끼워넣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생약재가 판매될 수 있는 판매장을 마련해야 하고 생약농사의 기계화도 추진해야 한다. 생약농사를 천직으로 삼고있는 농민이 우리 주변엔 많다는 점을 정부는 헤아릴 때다.

한약재 부정유통에 '철폐'

농림부 1백7개업소 적발

부정 반입된 중국산 인삼과 약재류를 국내산으로 위장 또는 국내산 과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했던 서울과 금산의 1백7개업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16개업소가 경찰에 고발되고 9개업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 국립농산물검 사상근 최근 서울 경동시장, 남대문시장과 충남시장의 인삼상가 및 한약재상가 1천여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집

후박·작약 약재로 부적합

국감자로 필수성분 함량미달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인 후박과 작약의 함량이 대부분이 약재로 작용하기 위한 성분인 사포닌이 미달, 약재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다국결과 서울에서는 인삼류 65건, 약재류 10건, 약재류 31건이 적발됐다.

농림부는 인삼 및 한약재류의 부정유통행위 가근절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이번 단속에서 중점인삼류의 부정유통이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상황버섯 함암효과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인체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각종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물질이 개발됐다.

생명공학연구소 전인동박사(바이오신소재연구소 부소장)는 7월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버섯 균사체로부터 추출한 다당체 성분을 함유한 다당체(多糖體) 신물질을 개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 물질은 투여한 결과 다름없이 질린 쥐에 비해 수명이 최고 1·8배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이 물질은 한편 위암, 대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 관련 암뿐만 아니라 면역결핍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하고 있다.

전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신약(주)에서 9월 10일(수)에 서울에서 열린 '96년 9월 신약개발대회'에서 '상황버섯 다당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전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신약(주)에서 9월 10일(수)에 서울에서 열린 '96년 9월 신약개발대회'에서 '상황버섯 다당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내방

자료를 따르면 9월 시 품의약품안전본부가 갈그를 9종의 한약재 1백76건을 대상으로 함량속 및 정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박은 조사대상인 20개제품 가운데 15개제품이 약재로서의 작용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성분이 기준함량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박이 약효를 갖기 위해 필수적인 성분인 마그네슘은 정량이 0.1% 이상 포함돼야 하

위의 5배,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와 2.5배, 세포를 잡아먹는 대식(大食) 세포 활성도와 2배 그리고 항체 생성력이 1.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에 걸린 쥐에 이 물질을 투여한 결과 다름없이 질린 쥐에 비해 수명이 최고 1·8배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이 물질은 한편 위암, 대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 관련 암뿐만 아니라 면역결핍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하고 있다.

전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신약(주)에서 9월 10일(수)에 서울에서 열린 '96년 9월 신약개발대회'에서 '상황버섯 다당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전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신약(주)에서 9월 10일(수)에 서울에서 열린 '96년 9월 신약개발대회'에서 '상황버섯 다당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6월부터 암사체제를 갖추고 현재 국립암센터 원천사업비 지원과 고려대경희대이화여대병원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섯에서 항암제를 추출해내려는 연구는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이 가장 활발한 편. 일본 암센터 등에서 버섯에서 추출한 다당체가 인체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를 70년대부터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표고버섯과 구름버섯에서 항암제를 뽑아 제형화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다당체인 효모를 발효시켜 의약품성질을 개발해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다당체는 미생물도 갖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작고 추출할 수 있는 양도 많지 않아 약용재료로 쓰이지 않고 있다.

상황버섯도 표고나 구름버섯에 비해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됐으나 자연산이 희귀하고 인공재배가 불가능해 그동안 실용화되지 못했었다.

상 15개제품 가운데 약재로서의 효능에 필수적인 마그네슘(2.0% 이상)이 미달하는 제품이 4개나 됐다.

사무소장 이계춘 경기성남시공판시장스우대시장태백시공판시장스조광호 강원정선군사무소장 이기범충남공주시사무소장스...영주시공...